

광주시교육청, '학교 간 협력교육' 성황

36개 일반고 1~2학년 190명 수강 열기

학생 진로·적성 고려한 이색 과목 개설 운영

광주시교육청이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 겨울방학 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을 통해 36개 일반고 1~2학년 190명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진로를 위한 수업으로 일찬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다.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은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 과목, 학생의 진로 희망과 적성을 고려한 산학 과목 등 단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이웃 학교와 협력해 개설·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기반 사업이다. 또한 학생의 과목 선

택권 확대를 위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는 정규 교육과정 수업이다. 기존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은 학기 중 수요일 방과후 수업 및 토요일 오전에 운영했지만,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겨울방학 과정 운영을 시작했다.

겨울방학 과정은 빅데이터 분석, 간호의 기초, 관광 서비스, 자동차 일반, 제빵, 건축 일반, 연극 제작 실습, 과학과제 연구, 제작 전공 실기 기초 등이다. 특히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이색 과목들로 구성돼 수강 신청부터 학생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광주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우재학 과장은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이번 겨울방학 운영 모델을 바탕으로 지역 대학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이 진로·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운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완도교육, 소통으로 혁신 말한다

'완도교육 2020 및 완도혁신교육지구 2.0 설명회'

완도교육청은 지난 17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유·초·중 교(원)장과 교육과정 담당자, 교육참여위원, 마을교육공동체 공모 참가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도교육 2020 및 완도혁신교육지구 2.0' 설명회를 가졌다.

특히, 신지 마을교육공동체 황규혜 대표가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과정 운영, 마을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운영 사례를 발표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 대해 고민하는 학교 관계자와 마을교육공동체를 준비하는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먼저 '완도교육 2020 설명회'에서는 혁신완도교육의 첫걸음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혁신완도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완도교육의 5대 지표와 48개의 단위과제, 2개의 역점과제와 특색과제를 설명하고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할 사항 및 주요 사업을 안내하였다.

여수교육청은 2019 개정누리과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유치원 현장의 의견을 수용하여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도=김평수 기자

여수교육청, 2020 사립유치원 교육계획 수립 지원 워크숍 실시

여수교육청은 지난 17일 대회의실에서 '2020 사립유치원 교육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 7월 개정된 개정누리과정의 현장인착을 위한 시각으로 '현장의 저율성'이 강화된 개정누리과정에 대한 이해와 놀이 중심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육의 본질을 제고하고 사립유치원의 실정에 맞는 교육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희망에 따라 늦은 밤 실시한 연수에 참여한 교원 130여명은 교육계획 수립을



위해 각 유치원이 추구하고 유아들도 이해하기 쉬운 교육 비전을

세우고, 모든 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계획 수립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더불어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이 각 교실에서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였다.

미주유치원 추선영 원감은 "교육 과정이 개정되면서 사립유치원 교원들이 교육계획 수립의 어려움을 더 깊이 느끼고 있을 때 이렇게 교원들이 함께 모여 교육계획의 수립에 대한 방향과 고민을 논의해 볼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사립유치원의 여건을 고려하여 늦은 시간에 워크숍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여수교육청은 2019 개정누리과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유치원 현장의 의견을 수용하여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김도현 기자

함평교육청, 학습동기강화 프로그램 '학교안 온드림스쿨' 운영



1곳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학교안 온드림스쿨'은 방학 기간 중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보호시설 이용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운영해 학습적·비학습적 저해 요인들을 해소하고 학습 동기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학교안 온드림스쿨'은 학생들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미디어 과의존의 문제 인식과 자기 이해를 통해 균형 잡힌 미디어 이용 습관을 기질 수 있도록 내적 동기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12 차시 운영된다.

함평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2017년부터 학기와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름·겨울방학 기간 중에도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보호시설 이용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특별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박영숙 교육장은 "학생들의 자존감 및 학습동기를 강화해 기초학력책임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김평준 기자

담양교육청, 설맞이 전통시장 행사 실시

담양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7일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 날 교육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미리 준비한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담양시장 일대에서 제수용품과 명절선물 등을 구입했다.

담양교육청은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지난 2011년 9월 담양시장과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이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구례교육청, 다문화 어울림 멘토링 성료

구례교육청이 지난 1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관내 다문화학생 및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학생들이 함께하는 다문화 어울림 멘토링을 운영했다.

이번 다문화 어울림 멘토링은 구례교육지원청과 순천대학교, 구례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협력 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아는

△ 교육지원청-순천대학교 업무 협약 △ 교육지원청-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업무협의회를 통해 통합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3개 기관이 연계해 구례 다문화 학생을 지원하는 최초의 사업이라는 데 의

미가 크다.

특히 2주 간의 어울림 멘토링을 통해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학생은 예비 교사로서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들은 기초학력 및 언어 능력 향상과 다양한 진로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순천대학교 한 학생은 '2주 긴의 짧은 시간이 있지만, 우리 지역의 어려운 여건의 학생을 보살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우리 대학생과 다문화 학생들의 지속적인 만남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